

범죄학상 학습이론에 관한 소고(小稿)

李昇鎬

(建國大學校 法科大學 副教授)

< 目 次 >

- | | |
|--|---|
| I. 왜 '학습이론'인가? | IV. 학습대상 및 학습과정에 관한 이론들 |
| II. 초기의 학습이론-타르드(tarde)의 모방이론- | 1. 서 |
| III.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교제이론과 그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 | 2. 밀러(Miller)의 하류계층 문화이론 |
| 1. 9가지 명제 | 3. 볼프강과 페라쿠티(Wolfgang & Ferracuti)의 폭력 하위문화이론 |
| 2. 학습대상과 학습과정 | 4. 커티스(Curtis)의 흑인 하위문화이론 |
| 3. 실증적연구 | 5.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 |
| | V. 학습이론의 현대적 의미 |

I. 왜 '학습이론'인가?

범죄학상 소위 '학습이론(learning theory)'이란 범죄를 정상적인 사람들의 정상적인 학습행위의 산물로 보는 일군의 학문적 관점을 일컫는다. 동 관점은 우선 범죄를 비정상성의 결과로 파악하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범죄이론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준법적인 의식이나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범죄도 사회생활상 습득된 행위패턴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적 범죄관은 19세기 말부터 제시되기 시작하였는데, 등장 초기에는 기존의 소질적 범죄원인론과의 대립으로 인해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¹⁾ 그러나 1930년대에 서덜랜드(Sutherland)에 의해 체계화되면서 오히려 기존의 담론을 밀어내고 주류 범죄학의 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교육학 일반 이론의 발달과 더불어 나름의 세련됨을 갖추게 된다.

이 글은 이러한 학습이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려는 것인데, 이 글이 학습이

1) 19세기 말의 실증주의 범죄학은 이태리 학파로 대변되는 범죄생물학 내지 범죄인류학으로 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 학파는 범죄인을 생래적(生來的)으로 별종인 존재로 파악한다. 이에 대해 학습이론은 범죄인 정상설을 주장하는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학습이론의 초기 개척자인 타르드(Tarde)는 롬보르조(Lombroso) 이론과의 대결을 자기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범죄 특히 청소년범죄와 관련하여 학습이론에는 아직도 나름의 설명력이 발견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청소년범죄는 소수의 개인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될 만큼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의 인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범죄에 빠진 청소년을 비정상적인 소질의 소유자로 몰아부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현상으로서의 청소년범죄를 분석하고 해명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가 필요한 바, 여러 범죄사회학의 이론들 중에서도 학습이론의 논지가 유용한 분석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이 글은 하고 있다. 둘째, 학습이론은 범죄학 이론사(理論史)의 측면에서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룩한 이론이라고 이 글은 평가한다. 사실 범죄를 비정상성의 산물로 파악하는 입장은 19세기 중반까지 서구를 지배한 담론이었다. 즉, 범죄를 악(마)성의 표출로 본 근대 이전까지의 종교적 세계관이나²⁾ 범죄인을 별종의 소질 소유자로 파악한 근대 초기의 범죄인류학적 사고방식은 모두 비정상성 범죄론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학습이론은 범죄를 정상적인 학습의 결과라고 했으니,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당시의 담론에 미쳤던 영향은 실로 심대할 수 밖에 없었다. 아울러 이러한 학습이론의 정상성 범죄론은 이후 구축된 다양한 범죄사회학 이론들의 토대가 되었고, 결국 범죄를 일반적인 사회현상의 하나로 파악하는 관점을 형성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학습이론은 범죄학 이론사의 흐름 속에서 단순히 '또 하나의 이론' 정도의 지위가 아니라 '새로운 장'의 개척이라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이 글의 인식이며, 동 인식이 학습이론에 특별한 흥미를 갖는 두 번째의 이유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학습이론의 내용에 대해 개괄적 검토를 해 보려하는데,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학습이론의 논지를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이를 바탕으로 동 이론이 우리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새겨보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이다.

II. 초기의 학습이론 - 타르드(tarde)의 모방이론 -

범죄가 학습의 산물이라는 관점을 처음으로 제시한 범죄학자로는 타르드(Tarde, Gabriel)를 들 수 있다.³⁾ 19세기 후반기에 활동했던 타르드는 당시 유행하던 범죄인류학과의 범죄인 비정

2) 근대 이전의 유럽사회는 신이 절대권력을 지니는 독존적(獨尊的)인 사회였으며, 따라서 신에 대항하는 것은 일체 허용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감수될 수 있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하에서 범죄를 '악령(demon)의 소산'으로 파악하는 독특한 관념이 형성되었으며, 이에 입각하여 범죄대책도 범죄인에게 붙어 있는 악령을 추방하는 일정 의식(儀式)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범죄인을 처형이나 추방함으로써 악령을 몰아내지 않으면 신의 분노와 복수가 사회에 내려진다고 생각하였는 바, 이러한 사고는 근대사회가 형성될 때까지 주류적인 형벌관념으로 지속되었다.

3) 타르드의 모방이론에 대한 설명이 잘 요약되어 있는 문헌으로는 Margaret S. Wilson Vine, "Gabriel Tarde," in Hermann Mannheim, ed., *Pioneers in Criminology*, 2nd ed., Patterson Smith, Montclair, N.J., 1972, pp.292-304를 들

상설을 거부하면서, 범죄인은 원래 정상적인 사람으로 단지 출생 후 범죄를 생존방식의 하나로 학습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이론을 '모방이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범죄 학습의 형태가 모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아울러 모방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는 다음의 3가지 법칙을 제시한다.

첫째, 제 1 법칙은 '거리의 법칙'이다. 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 모방이 잘 일어나는가에 관한 원칙인 바, 타르드에 의하면 사람 간의 거리가 가까울 수록 범죄모방이 더 잘 일어난다고 한다. 즉, 사람이 많은 거리나 군중 속처럼 사람간의 접촉이 빈번한 곳에서는 범죄행위가 유행적으로 모방되지만, 한적한 곳이나 안정된 집단 속에서는 전통적인 관습의 힘이 강하여 여간해서는 범죄행위의 모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타르드의 설명이다. 아울러 여기서의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까지를 포함한다고 타르드는 덧붙인다.

둘째, 제 2 법칙은 '위에서 아래로의 법칙'이다. 이는 모방이 일어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가의 문제인데, 범죄모방은 위에서 부터 아래로 전파된다는 것이 타르드의 설명이다. 즉, 상류계층의 범죄가 하류계층으로 모방되고 도시에서 발생한 범죄가 시골로 전파된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살펴 보아도 방랑, 알코올중독, 독살 등과 같은 범죄는 유럽의 경우 원래 왕족 사이에서 행해졌다가 차츰 일반인에게로 전파되었고, 어린이 성추행도 대도시에서 발생하여 시골로까지 전파되었으며, 시체를 토막내는 행위도 1876년 파리에서 처음 발생한 후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다는 것이 타르드의 설명이다.

셋째, 제 3법칙은 모방의 변화에 관한 법칙인데, 이와 관련하여 타르드는 '무한진행과 삽입의 법칙'을 제시한다. 즉, 모방은 한계없이 퍼지고 확장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관습적 모방과 상충되는 새로운 내용의 유행적 모방이 생성될 때에는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의 모방 과정에 삽입되어 과거의 것을 배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타르드는 그 예로서 칼에 의한 살인이 점차 총에 의한 살인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거론한다.

이러한 타르드의 이론은 지나치게 간단한 학습모델에 근거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당시 풍미하던 범죄인류학과의 이론에 제동을 걸고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범죄행위를 묘사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타르드 이후 "범죄행위는 정상적인 학습의 결과이다"라는 그의 기본명제에 근거한 이론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서덜랜드(Sutherland)의 이론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하자.

수 있다.

III.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교제이론과 그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

1. 9가지 명제

서덜랜드는 학습이론의 전형을 제시한 범죄학자로 평가받는다. 그의 이론은 그의 범죄학 교과서 제 4판에 체계화되어 있는데, 소위 '차별적 교제이론(the theory of differential association)'이라 명명되는 그의 이론은 다음의 9가지 명제로 요약된다.⁴⁾

- ① Criminal behavior is learned : 범죄행위는 학습된다.
- ② Criminal behavior is learned in interaction with other persons in a process of communication. : 범죄행위의 학습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 ③ The principal part of the learning of criminal behavior occurs within intimate personal groups. : 범죄행위의 학습은 주로 친밀한 집단들 속에서 잘 일어난다.
- ④ When criminal behavior is learned, the learning includes ㉠ techniques of committing the crime, ㉡ the specific direction of motives, drives, rationalization and attitudes. : 범죄행위가 학습될 때, 그 학습의 내용에는 범죄행위의 기술 뿐 아니라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등도 모두 포함된다.
- ⑤ The specific direction of motives and drives is learned from definitions of the legal codes as favorable or unfavorable. : 동기 내지 충동이 어떤 방향으로 학습되느냐 하는 것은 법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가 비우호적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 ⑥ A person becomes delinquent because of an excess of definitions favorable to violation of law over definitions unfavorable to violation of law. : 범위반에 대해 비우호적인 인식보다 우호적인 인식이 앞서도록 학습된 사람은 비행으로 나아간다.
- ⑦ Differential associations may vary in frequency, duration, priority, and intensity. : 차별적 교제는 만남의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 ⑧ The process of learning criminal behavior by association with criminal and anticriminal patterns involves all of the mechanisms that are involved in any other learning. : 범죄적 혹은 비범죄적 유형과 접촉하면서 범죄행위를 학습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여타의 다른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카니즘이 모두 나타난다.
- ⑨ While criminal behavior is an expression of general needs and values, it is not explained

4) Edwin H. Sutherland Criminology, 4th ed., Lippincott, Philadelphia, 1947, pp. 6-7 참조. 아울러 동 책의 가장 최근판은 Edwin H. Sutherland and Donald R. Cressey, Criminology, 10th ed., Lippincott, Philadelphia, 1978인 바, 여기서는 위의 명제들이 pp. 80-82에 실려 있다.

by those general needs and values, since noncriminal behavior is an expression of the same needs and values. : 물론 범죄행위는 일반적인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지만, 그러한 욕구와 가치가 범죄행위의 본질적 성격을 특징지워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비범죄적 행위도 그와 동일한 욕구 및 가치에 의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학습대상과 학습과정

위의 9가지 명제 중에서 ①과 ②는 범죄행위가 사람들간의 “교제를 통하여 학습”된다는 서덜랜드 이론의 선언적 논지에 해당한다.⁵⁾ 아울러 ③부터 ⑨까지는 동 논지의 구체적인 내용인 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무엇이 학습되느냐 하는 학습의 대상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덜랜드는 특정한 범행기술, 범행에 대한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그리고 ‘범위반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 등을 거론하였는 바(④,⑤,⑥), 이것들은 모두 인식적인 요소임에 주의를 요한다. 즉, 행위 자체가 아니라 관념이 학습되는 대상이라고 한 것이다. 둘째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덜랜드는 친밀한 인간집단 사이의 교제에 의해 학습이 성취된다고 지적하면서, 교제의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 등에 따라 학습효과가 달라지는 등 범죄적 관념의 학습은 준법적 관념의 학습과 동일한 메카니즘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③,⑦,⑧,⑨).

여기서 적시할 사항은 위 서덜랜드의 이론의 두 부분이 미드(Mead, George Herbert)의 ‘상징적 상호작용이론(symbolic interactionism)’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⁶⁾ 우선, 학습의 대상에 관한 서덜랜드의 서술은 “사물에 대한 인간의 행동은 동 사물이 지니는 의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미드의 논지를 연상시킨다. 즉, 행동은 ‘의미’라는 인식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인데, 서덜랜드가 사람들의 범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여건 자체보다 각자가 개별 경험에 근거하여 동 여건에 부여하는 의미를 중요하게 거론한 것은 미드의 논지와 같은 계열에 선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여건은 같더라도 부여하는 의미가 다를

5) ‘학습은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we learn by association)’라는 명제로 대표되는 소위 교제이론(associationism)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도 주장하였다고 한다. 즉, 그에 의하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감각경험들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들은 형성 자체가 상호간의 영향을 통하여 이루어 질 뿐 아니라 형성된 후에도 서로 접촉되어 상호작용하고 교제되는 바, 그러한 경험들의 교제를 통하여 지식이 획득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교제이론(associationism)은 근대 이후에도 홉스(Hobbes), 로크(Locke), 흄(Hume) 등에 의해 다듬어 지고 수정되었으며, 쏘다이크(Thorndike)에 의해 수행된 동물의 학습에 관한 최초의 실험 뿐만 아니라 에빈하우스(Ebbinhaus)에 의해 수행된 인간의 기억에 관한 최초의 실험에 있어서도 기초이론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교제이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J. R. Anderson and Gordon H. Bower, Human Associative Memory, Winston and Sons, Washington, D.C., 1973를 참조할 것).

6) 서덜랜드는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공부하면서 당시 동 대학의 교수로 있던 미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Mead의 사상에 대한 검토는 Herbert Blumer, Symbolic Interactionism,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1969 참조. 또한 동 이론의 간단한 경리는 George B. Vold, Theoretical Criminolog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9, pp. 255-58에 수록되어 있다.

때에는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하에서도 달리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하게 혹독한 여건 속에서 성장한 두 형제 중 하나는 마약중독자가 되고 하나는 성직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논지의 타당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서덜랜드는 설명한다. 또한 학습의 과정에 관한 서덜랜드의 설명도 “사람이 사물에 대해 갖게 되는 의미는 동료들과의 사회적 교제를 통해 발생되거나 형성된다”라는 미드의 주장과 관련을 갖고 있다. 즉,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인데, 서덜랜드 역시 각 개인이 범죄행위에 대해 갖게 되는 의미는 그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동 행위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덜랜드는 여러 사회적 교제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 개인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교제의 ‘빈도, 기간, 우선성, 그리고 강도’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3. 실증적 연구

서덜랜드의 이론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범죄의 원인은 범위반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과의 교제”라는 것이다. 문제는 동 이론이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동 이론에 대한 실증작업은 대부분 성인범죄가 아니라 소년비행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년비행에 있어서는 비행의 집단화 현상이 쉽게 나타나서 비행화의 원인이 동료와의 교제때문이라는 가설의 성립이 비교적 가능해지기 때문이다.⁷⁾

하지만 소년비행의 이러한 현상에서 곧 바로 “교제가 비행의 원인”이라는 명제를 도출하는 것은 무리인 측면도 있다. 이를 지적한 대표적인 범죄학자로 글뤼크 부부(Sheldon & Eleanor Glueck)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소년비행의 집단화 현상을 “끼리 끼리 모인다”⁸⁾ 현상때문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즉, 비행자는 자기와 가치 및 행동을 같이 하는 소년들만을 친구로 선택하기 때문에 비행의 집단화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기의 비행이 비행친구와의 교제의 ‘원인’으로 되는 것이지, 비행친구와의 교제 때문에 비행을 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이는 범죄인 및 비행자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 행위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서덜랜드 이론의 계승자인 크렛시(Cressey, Donald)는 1960년에 발표한 한 논문에서 차별적 교제이론이 검증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인하기까지 하는 것이다.⁹⁾

하지만 마쥬다(Matsueda)는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이론이 검증가능하며 상당히 많은 양의

7) Albert J. Reiss, Jr., "Co-offender Influences on Criminal Careers", in Alfred Blumstein, Jacqueline Cohen, Jeffrey Roth, and Christy Visher, eds., *Criminal Careers and "Careers Criminal"*, vol. 2,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986, pp. 145-52 참조

8) Sheldon Glueck and Eleanor T. Glueck,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ommonwealth Fund, New York, 1950, p. 164

9) Donald Cressey, "Epidemiology and Individual Conduct", *Pacific Sociological Review* 3, 1960, pp. 47-58

연구들이 동 이론을 검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⁰⁾ 우선, 비행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 소년들이 역시 비행행위도 많이 하였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는 차별적 교제이론을 근거지워 주는 일반적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즉, 충분한 근거는 되지 못하지만 최소한 필요조건은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범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의 효과에 대해 검토한 많은 연구들도 동 정의가 범죄 및 비행에의 참여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마쥬다는 주장한다.¹¹⁾ 물론 이러한 주장을 염두에 두어 글릭크 부부는 "과연 누가 범위반에 대해 우호적인 정의와 비우호적인 정의의 수를 세어서 비행 전의 인생사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보다 많았음을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나,¹²⁾ 이에 대해서도 마쥬다는 최근의 통계기술 발전은 범위반에 우호적인 정의와 비우호적인 정의의 비율 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Sutherland 이론의 원인구조를 충분히 해명해 준다고 주장한다.¹³⁾

이렇게 볼 때 서덜랜드 이론이 어느 만큼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양 입장이 대립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실증가능성을 별론으로 하고 체계적인 학습이론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후 동 이론을 발판으로 하여 더욱 심화된 이론적 작업들이 생산됨으로써 학습이론의 내용이 풍부해졌다. 그러면 항을 바꾸어서 서덜랜드 이후의 학습이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IV. 학습대상 및 학습과정에 관한 이론들

1. 서

오늘날의 많은 범죄학 이론들은 서덜랜드의 이론으로부터 연원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특히 문화이론 및 하위문화이론은 학습대상에 관한 서덜랜드의 주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동 이론들은 서덜랜드 이론의 인식론적 측면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범죄행동의 원인으로서는 관념의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서덜랜드의 이론 중 학습과정의 문제에 더 초점

10) 마쥬다의 이론은 James T. Orcutt,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Marijuana Use", *Criminology* 25(2), May, 1987, pp. 341-358에 정리되어 있음.

11) 다만 마쥬다는 동 정의가 "법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범죄를 도덕적으로 온당한 것으로 보는 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있어서 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일반사회의 문화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한다.

12) Sheldon Glueck, "Theory and Fact in Criminology: A Criticism of Differential Associationism," *British Journal of Delinquency* 7, Oct. 1956, pp. 92-109.

13) 또한 최근에는 마크 워(Mark Warr)가 연령과 범죄의 관계를 차별적 교제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히 서덜랜드가 제시한 교제기간이라는 변수가 유의미함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그는 우선성이라는 변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보다는 최신성(recency)이라는 변수가 비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Mark Warr, "Age, Peer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1(1), Feb., 1993, pp. 17-40)

을 맞춘 이론들도 있는데, 소위 사회학습이론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동 이론은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이론에 현대적 학습이론을 접목시킴으로써 학습과정의 구체적인 기술들을 정리한다. 그러면 이 장에서는 이러한 두 부문의 오늘날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밀러(Miller)의 하류계층 문화이론

밀러는 갱범죄를 연구하면서 그 원인으로 하류계층 문화에서 연원하는 갱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생각(즉, 관념)의 역할을 강조한다.¹⁴⁾ 우선 그는 하류계층에게는 중류계층의 문화와는 다른 독자적이고 별개인 문화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화는 적어도 중류계층의 문화만큼이나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중류계층이 '성취'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하류계층은 건장함, 민첩성, 자극, 운명, 자율 등과 같은 '나름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바,¹⁵⁾ 이러한 하류계층의 독특한 관심사가 갱범죄의 '유발환경'이라고 설명한다. 즉, 밀러가 열거한 하류계층의 '관심사'는 모두 갱단의 속성과 상통한다. 건장함과 민첩성은 갱들이 갖추어야 할 행위덕목이고, 자극에 대한 선호나 발생된 문제를 운명 탓으로 돌리는 것도 갱들에게서 발견되는 감성태도이며, 기존 사회의 규범체계를 부인하고 자율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것도 갱들만의 생활방식인 것이다. 아울러 하류계층에서는 가정의 공간부족으로 소년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류계층 나름의 관심사에 흥미를 갖게 되어 갱단을 형성한다는 것이 밀러의 주장인 바, 이렇게 범죄친화적 문화의 습득이 범죄발생의 원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밀러의 이론은 차별적 접촉이론과 케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3. 볼프강과 페라쿠티(Wolfgang & Ferracuti)의 폭력 하위문화이론

볼프강과 페라쿠티는 '폭력의 하위문화'라고 불리우는 범죄적 폭력에 관한 일반이론을 수립하였다.¹⁶⁾ 동 이론은 필라델피아의 살인사건들을 연구한 볼프강의 초기 저작에서 비롯되었는데,¹⁷⁾ 여기서 그는 하류계층에서 발생하는 살인의 원인이 대부분 사소한 일로서, 그렇게 하찮은 사건들이 살인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은 어떻게 반응·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해 동 그룹에 유포되어 있는 상호간의 기대가 독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이처

14) Walter B. Miller, "Lower Class Culture as a Generating Milien of Gang Delinquency," *Journal of Social Issues* 14(3), 1958, pp.5-19.

15) 동 관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건장함 - 남성다움, 인내력, 강함 등은 모두 높이 평가된다. 민첩성 - 다른 녀석을 능가하는 기술, 즉 높은 지능보다는 '재치'를 중시한다. 자극 - 끊임없이 스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운명 - 인간에게 일어나는 거의 모든 것은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그러한 것에 대해 아무것도 행하여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율 - 권위와 규칙에 대해서 분개한다.

16) Marvin E. Wolfgang and Franco Ferracuti, *The Subculture of Violence*, Sage, Beverly Hills, Cal., 1981.

17) Marvin E. Wolfgang, *Patterns in Criminal Homicid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1958.

럼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볼프강은 서덜랜드의 이론을 빌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⁸⁾

밀치기, 약간 모욕적인 표현, 또는 손에 무기를 들고 있음 등이 상대에게 어떤 자극과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은 흑인과 백인,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해석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정한 상황속에서 이렇게 기대되는 반응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곧 '상황에 대한 정의'가 차별적임을 뜻한다. 남성은 대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나 명예를 보호하고 신사도의 정신으로 여성의 정조를 지켜주어야 하며, 자기의 인종적 혈통, 연령, 남성다움 등에 대해 행해지는 모욕은 그 어떤 것도(심지어 같은 인종들로부터 받는 인종적 모욕까지도) 받아들여서 안되는 것으로 기대된다. 담력과 용기를 보여주고 자기의 지위를 방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쉽사리 물리적 싸움에 의존하는 것은 흑인이건 백인이건 구별없이 하류계층의 남성들에게서 공히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이다. 그리하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화적 반응기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도 그러한 행위를 답습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물리적 폭행, 말다툼, 가정내의 폭력적 다툼 등은 일상사가 되며 이는 경우에 따라 살인을 부르기도 한다.

볼프강과 페라쿠티는 이 연구 이외에도 범죄적 폭력에 관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것들을 종합하여 모살(謀殺)이나 정신병적 살인이 아닌 격정범으로서의 일반 살인유형을 설명하는 일반이론을 수립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배문화와 폭력적인 하위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가치갈등에 대해 설명하는데, 한 실례로 폭력적인 하위문화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지배문화에 속해있는 사람들 보다 명예는 더 높이 평가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아울러 폭력적인 하위문화와 지배문화사이에는 규범갈등도 존재한다. 즉, 사소한 밀침이나 언사에 대해 반응하도록 기대되는 행위의 '규칙'이 다르고 이로 말미암아 하류계층에서는 그러한 사소한 자극이 살인을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 규범들은 사회적 보상과 처벌에 의해 뒷받침된다. 즉 동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위문화에 속해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비판받거나 조롱거리가 되며, 그 규범에 따르는 사람들은 찬양되고 존경받는다. 이렇게 그러한 규범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자신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 규범은 각 개인이 그것을 승인하느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다. 즉, 아무도 폭력을 승인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각 개인은 자기가 폭력을 쓰지 않으면 상대가 폭력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폭력을 사용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폭력의 하위문화는 '그가 아니면 나'라는 식의 유사(類似) 전쟁상황을 형성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볼프강과 페라쿠티가 서덜랜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격정살인의 직접적 원인을 관념, 즉 가치나 규범 나아가 행위기대라고 설명한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하위문화는 한 번 형성되면 사회가 변하더라도 일련의 관념으로 세대를 거쳐 전승된다는 그들의 주장도 특기할만 하다. 따라서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제도개선이 아니

18) Ibid., pp. 188-89.

라 폭력적 하위문화의 요소인 관념을 개선시키는 것이 되는 셈이다.¹⁹⁾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둘 때, 볼프강과 페라쿠티의 작업도 서덜랜드의 학습이론 중 학습대상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커티스(Curtis)의 흑인 하위문화이론

커티스도 미국 흑인들 사이의 폭력하위문화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볼프강과 페라쿠티의 이론을 보완한 것이었다.²⁰⁾ 커티스에 따르면 폭력하위문화의 기초가 되는 '중심적 충동기제'는 '남성다움'에 대한 과장된 견해라고 한다.²¹⁾ 이로 말미암아 일반사람들에게는 사소하게 여겨지는 상황하에서도 폭력하위문화에 몰든 사람들은 흥분하여 대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여 훌륭한 화술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한 대처상황을 조종해 나갈 수 있을 것이지만, 화술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며,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행동방식을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남성다움에 대한 과장된 견해는 흔히 여성에 대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즉, 훌륭한 화술을 지니는 남자는 말로 여성을 유혹하여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겠지만, 그렇지 못한 남자는 물리적인 힘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강간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5.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

지금까지 살펴본 문화이론 및 하위문화이론은 서덜랜드의 이론 중 학습대상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학습과정에 관한 서덜랜드의 설명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과 연구들도 발견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가가 에이커스이다. 즉, 에이커스는 범죄행위가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라는 서덜랜드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현대적인 교육이론을 도입하여 '정상적인 학습'의 개념을 보다 풍부하게 구축해보려 시도하였다. 그 결과 범죄학습이 친밀한 인간집단간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서덜랜드의 교제이론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간의 교제와는 별개로 환경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한 환경습득적 방법으로도 학습될 수 있다는 점을 첨가한다. 아울러 이러한 학습과정에 대한 설명의 수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습대상에 대해서도 변화를 꾀하는 바, 관념만이 아니라 행동 자체도 직접 학습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최근의 교육이론적 관점을 수용한다.

이러한 에이커스의 이론은 흔히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혹은 '사회적 학습

19) 한 실례로서 볼프강과 페라쿠티는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소득 주택을 도시의 일정지역에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킴으로써 하위문화를 소멸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Ibid., p. 299.)

20) Lynn A. Curtis, *Violence, Race, and Culture*, Heath, Lexington, Mass., 1975.

21) Ibid., p. 37.

(social learning)'의 이론이라 불리는데, 그것의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적 교제의 개념을 받아들인다. 즉, 범죄학습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차별적 교제를 거론하면서, 이것은 법위반에 대해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생각을 갖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차별적 교제의 효과가 우선성, 기간, 빈도, 강도 등에 따라 좌우된다는 서덜랜드의 논지도 받아들인다. 하지만 동 교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람간의 직접적 의사소통을 통한 생각의 전달 뿐 아니라 다소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의 일치적 확인을 통한 간접적 생각의 전달까지 포함시킨다는 특색을 지닌다. 둘째,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가리키는 '정의(definition)'라는 개념도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에서 나름의 중요성을 지닌다. 특히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신념을 의미하고, 후자는 각자가 특정행위(예를 들어 마리화나 흡연행위,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 강도살인행위 등)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말한다. 셋째,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의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행위에 대해 기대되는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은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상을 받거나 최소한 처벌은 면하리라고 생각하는 행위들을 행하고, 처벌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행위들은 하지 않는 바, 이러한 보답과 처벌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사회적 학습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넷째,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여 모방하는 것도 사회적 학습의 한 내용이라고 한다. 아울러 해당행위를 모방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부는 관찰하는 사람의 성격, 자기가 행하는 행위, 동 행위를 관찰한 결과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범죄행위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순서는 차별적 교제 → 행위에 대한 정의 → 모방 → 사회적 조장 내지 강화라고 한다. 나아가 범죄를 한 번 범하고 난 후에는 차별적 강화가 범죄행위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에이커스의 설명이다. 즉, 보상과 처벌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내적, 사회외적 강화의 내용이 이후 범죄발생의 중요한 변수인데, 동 보상과 처벌에는 범죄행위를 시작한 행위자가 직접 체험한 것 뿐 아니라 다른 범죄행위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간접적 체험의 소산까지도 포함된다고 한다.

V. 학습이론의 현대적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이론은 서덜랜드가 범죄행위를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묘사한 이후, 학습의 대상과 과정에 관해 여러 현대적 이론들이 첨가되면서 범죄를 바라보는 하나의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였다. 문제는 동 이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범죄를 단순히 비정상성의 소산으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학습이론의 메시지는 현금의

우리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용성을 지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는 범죄를 별종(別種)의 행동으로 백안시하는 인식이 광범하게 퍼져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없는 강성 범죄대책이 실행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몰아부침’에 의존하는 강경책은 범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범죄인을 ‘왕따화’하면 일반인의 동지적 유대감은 확보될지 몰라도 범죄인과 일반인 간의 골은 더욱 깊어질 뿐이다. 그렇게 차등화, 열등화 시켜놓고 나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의 구축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이다. 범죄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은 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범죄인의 사회적 위상을 있는 그대로, 합리적으로 파악한 연후라야 가능해진다. 범죄인과 일반인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감성적으로는 기분 나쁠지 몰라도, 사실이 그렇다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범죄와 준법적 행동을 학습의 소산이라는 차원에서 같은 반열에 놓는 학습이론은 우리사회의 범죄이미지를 건설적으로 재구축하는데에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적어도 범죄에 대한 비합리적인 ‘왕따화’ 현상은 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것이다.

둘째, 학습이론은 소위 정치색의 차원에서도 오늘날 우리사회를 주도적으로 견인할 가치들을 다수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생물학 내지 통제이론적 가치에 의존하는 우파 범죄이론들은 21세기의 변화된 사회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함을 드러낸다. 그런가 하면 범죄발생의 원인을 사회구조의 수준에서 찾으려는 좌파 범죄이론들은 명제만 그럴 듯 할 뿐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반해 학습이론은 실용적인 범죄대책의 수립에 기여하려는 우파적 색깔과 범죄발생의 원인을 범죄인 밖에서 찾으려는 좌파적 색깔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²²⁾ 따라서 이러한 양파적(兩派的) 색깔은, 형이상학적 이데올로기보다는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시되고 갈등의 생산력보다는 화합의 안정력(安定力)이 더 요청되는 21세기의 사회에서, 신선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930년대에 등장했던 학습이론이 오늘날 다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학습이론이 지니는 이러한 정치적 적절성에도 기인한다.

셋째, 오늘날 우리사회의 정보화 추세는 소위 ‘학습된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학습이론은 새롭게 발생하는 모방범죄 내지 학습범죄에 나름의 해결지표를 제시해 준다. 인터넷의 보편화는 학습의 범위와 속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기술의 고도화는 범죄확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범

22) 또한 신념이 범죄행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러한 신념의 근저에 사회구조가 원천으로 깔려있다는 사회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신념이 행위 일반, 그리고 특히 범죄행위의 원인이어서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커티스(Curtis), 그리고 마쥬다(Matsueda)와 그의 동료들이 수립한 명제, 즉 사회구조와 개인행동 간의 중요한 매개변수로서 문화가 작용한다는 주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관념과 신념 - 여기에는 행위에 대한 정의, 특정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기대, 특정 행위에 대한 사회의 승인 및 배척, 그렇게 기대되고 승인된 행동을 보상과 처벌로 뒷받침해주는 사회의 반응 등이 포함된다 - 이 사회구조라는 원천과는 별개로 행위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李 昇 鎭 : 범죄학상 학습이론에 관한 소고(小稿)

죄모방과 학습의 가능성에 모든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곧 청소년범죄 발생의 큰 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닥쳐온 우리의 미래를 염두에 두면, 학습이론의 의미는 한층 새로워 진다.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더욱 현대적으로 세련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말이다.

〈參考文獻〉

- Margaret S. Wilson Vine, "Gabriel Tarde," in Hermann Mannheim, ed., *Pioneers in Criminology*, 2nd ed., Patterson Smith, Montclair, N.J., 1972.
- Edwin H. Sutherland *Criminology*, 4th ed., Lippincott, Philadelphia, 1947.
- Edwin H. Sutherland and Donald R. Cressey, *Criminology*, 10th ed., Lippincott, Philadelphia, 1978.
- J. R. Anderson and Gordon H. Bower, *Human Associative Memory*, Winston and Sons, Washington, D.C., 1973.
- Herbert Blumer, *Symbolic Interactionism*,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1969.
- George B. Vold, *Theoretical Criminolog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9.
- Albert J. Reiss, Jr., "Co-offender Influences on Criminal Careers", in Alfred Blumstein, Jacqueline Cohen, Jeffrey Roth, and Christy Visher, eds., *Criminal Careers and "Careers Criminal"*, vol. 2,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986.
- Sheldon Glueck and Eleanor T. Glueck,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ommonwealth Fund, New York, 1950.
- Donald Cressey, "Epidemiology and Individual Conduct", *Pacific Sociological Review* 3, 1960.
- James T. Orcutt,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Marijuana Use", *Criminology* 25(2), May, 1987
- Sheldon Glueck, "Theory and Fact in Criminology: A Criticism of Differential Associationism," *British Journal of Delinquency* 7, Oct. 1956.
- Mark Warr, "Age, Peer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1(1), Feb., 1993.
- Walter B. Miller, "Lower Class Culture as a Generating Milien of Gang Delinquency." *Journal of Social Issues* 14(3), 1958.
- Marvin E. Wolfgang, *Patterns in Criminal Homicid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1958.
- Marvin E. Wolfgang and Franco Ferracuti, *The Subculture of Violence*, Sage, Beverly Hills, Cal., 1981.
- Lynn A. Cutis, *Violence, Race, and Culture*, Heath, Lexington, Mass., 1975

SUMMARY

An study of Learning Theory in Criminology

Lee, Seung Ho

(Department of Law, College of Law, KonKuk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learning in the generation of criminal behavior. The so-called 'Learning Theory' was formulated by Edwin H. Sutherland. His theory has two basic elements. The one is the content of what is learned and the other is the processes by which that learning takes place. The objects of learning includes specific techniques for committing crimes ; appropriate motives, drives, rationalizations and definitions favorable to law violation. In addition, The processes of learning involves associations with other people in intimate personal groups. That is, he states that differences in behavior -for example, law-abiding behavior and criminal behavior- arise because of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peoples who define their similar situations differently.

His theory has been supplemented with the work of Walter B. Miller, Wolfgang & Ferracuti, Lynn A. Curtis and Ronald Akers. Miller, Wolfgang & Ferracuti and Curtis focus on the content of what is learned. They investigate the factor of culture and subculture as the etiology of crime but argue that it is the ideas themselves, rather than the social conitions, that directly cause criminal behavior. On the other hand, Akers focuses on the learning process. He proposes a specific sequence of events by which the learning of criminal behavior is said to take place. That is, his social learning process theory explains the link between social structural conditions and individual behaviors.